

선교보고 2025. 5. 유럽선교회 정기모임을 다녀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인간성은 모든 기독교인 세대를 필요로한다. 그것이 육대주가 가져다주는 모든 문화적 다양성을 구축현듯 말이다.” (앤드류 윌스)

보고자 : 이성춘, 성영 선교사 (독일)

열린 세상이며 충돌하는 세상이 되는 곳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라인강을 점령하면서 강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라틴말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었서 무슨 말인지 몰라 대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답답해서 다시 물으면서 손가락으로 강물을 가르치면서 저것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응, 저것은 흐르는 것이야, 물이 흐르고 있어” 라고 “라인”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라인강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라인의 물은 스위스 알프스에서 발원하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통해 북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강들은 서로 연결되어 내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라인강은 프랑크푸르트 마인강으로 연결되고, 마인강은 도나우(다뉴브)강으로 연결되어 루마니아 동쪽 해안을 통해 흑해로 흘러갑니다. 독일의 라인 마인 도나우 운하가 1992년 건설된 이후 북해의 로테르담으로부터 흑해의 술리나까지 전 유럽을 가로지르는 3500km 수로가 열린 것입니다. 유럽의 강들을 통해 문화, 물류, 인적자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때 철의 장막으로 길이 막히고 동서 유럽은 단절되었습니다. 1989년 통독이 된 후에는 동서를 구분하는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유럽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철의 장막의 자리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기독교와 모슬렘의 종교의 장벽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도로와 강으로 연결된 유럽이 다시 도시화와 이주로 인해 서로 다른 세상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 옴으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 유럽의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의 장막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다종교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니폼적인 모습이 아닌 모자이크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세워야 합니다.

유럽의 사역자들의 모임과 선교적 의미

열린세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단절된 작은세상이 만들어지는, 독일의 이 라인강변의 오버베젤의 유스호스텔에서의 유럽 선교회 (통합) 수련회와 총회 (4월 22일 -25일) 에 저희 부부가 참여하였습니다.

유럽 선교회는 교단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모인 유럽 선교사회가 여러 사역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유럽선교회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13년 차 진행되는 이 대회는 선교사와 자녀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귀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모임을 위해서 각 가정별로 매일 릴레이 기도문을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기도하며 기다린 모임이고, 첫날 모임에서 기도의 가정을 정하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저녁 집회와 새벽 기도회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감동적인 삶의 고백들이 증언되었습니다. 오전 특강을 통해서 오늘의 선교현장에서 새로운 변화와 대응이라는 과제와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시대와 AI 시대를 통한 새로운 선교 전략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적인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과 다가온 미래의 선교전략에 대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만남의 시간을 통해 회원들의 사역과 근황을 공유하고, 위원회별 모임을 통해서 한인교회 사역자들, 타문화사역자들, 여성선교사들, 차세대인 자녀들의 시간들로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인 근황을 들어보면, 사역의 진보와 문화적 적응



을 잘 이루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의 문제, 비자의 문제, 사역의 문제들의 무게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화적 충돌, 경제적인 부담, 사역의 어려움, 체제를 위한 법적인 규정과 높은 수준의 기준 등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여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사역자들은 터키의 자연재해 등을 통해 긴급 구호, 긴급지원을 감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 상호 연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도피하고 살길을 찾아 떠난 난민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위기관리 위원회를 임시기구가 아닌 상설위원회로 조직화하고 자연재해, 전쟁, 분쟁의 위기 상황을 대비하면서, 회원들의 멤버케어와 디브리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총회에서 해외 선교사들이 담당하는 한인교회를 총회가 인정하는 노회가 되도록 결의하고 허락했습니다. 한인교회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선교노회를 구성하고 조직화하며 시스템화하여 나갈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예배자로, 사역자로 세워지고

유럽내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사역 초기에 유럽선교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난할 때의 선교, 아직 한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확실하게 존중받지 못할 때에 유럽 선교는 가당치 않는 선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교육을 시키려고 유럽에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냐고 면전에서 핀잔을 받았고, 고생없이 잘먹고 잘살아서 살이 찼다고 면박을 주는 분도 만났습니다. 그 땐 잘 못먹어도 똥똥한 체질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유럽선교를 누가 감히 감당해 라는 상황인식과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는가 라는 선교신학적 물음이 이제는 그 꼬리표를 끊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한국 선교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기독교가 약해지고, 이방인의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들이 동등한 사역자로, 그들을 대신할 사역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유럽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이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어느덧 우리를 이곳의 주민으로, 이곳의 사역의 주체자와 실행자로 삼아주었습니다.

J.A.B. 종게닐은 유럽의 기독교 이민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변화는 내일의 세계선교, 202)

“유럽에 온 기독교 이민자들은 기존의 유럽 교회나 공동체의 부가물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으며, 주도권을 갖고 일하며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열정과 비기독교 종교와 사상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들이 선교와 복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 기독교 이민자들은 기존의 유럽 교회가 그들의 선교와 복음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03, 29-33)”



우리는 이미 기존의 이민자가 되어 유럽교회를 향해 선교와 복음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료, 주민,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곳 모임을 통해서, 이 모임이 진행되는 라인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들의 사도적 열정, 사도적 포기, 사도적 헌신, 사도적 의사결정들이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도전들 1 : 런던선교회의 사도적 포기를 통한 선교의 지속성의 토대

특강을 해주신 영국 런던선교회의 사무총장은 교단의 목사로서 에쿠메니칼 연합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런던 선교회는 18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섬긴 단체이며 여러 상황에서 본부를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정책과 원칙이 선교사의 생활비, 선교비가 현지의 동종 직종의 현지인과 동일한 급료를 받는 것입니다. 영어교사로 솔로몬 제도에서 20년을 섬긴 싱글 선교사는 현지의 교사 월급수준의 20불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선교사들에게 부모님들이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은퇴 후 노년을 영국을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작은 아파트들을 선교회에 기증하하였습니다. 한해 런던에서 20채의 아파트를 기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교회에서 이런 집들을 정리하여 4천억원 기금조성을 조성하였고, 그 기금으로 지속적인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후에는 모든 것을 세계선교를 위해서 헌납하는 귀한 헌신과 정신을 세워주었습니다. 살으나 죽으나 주를 위한 모습, 세계의 복이 되는 모습을 살아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평생 저비용 선교를 감당하고, 사도적 포기를 통해서 성육신적인 선교를 감당한 모습을 가진 영국선교사들이 선교회의 중요한 영적, 물질 재원이 되고 지속적인 사역의 원천이 되게 하였습니다. 유럽에서 감당했던 모든 선교는 고비용인 것만을 생각했는데, 이런 사도적 포기를 통한 선교의 저비용을 이루고 있는 실례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의 강성함과 지속성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할지 보여주고 도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도전들 2 : AI 시대에도 필요한 목회직

4차 산업시대와 빅데이터와 에이아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선교전략에 민감하고 수용하고 돌파구를 찾아야함을 보게되었다. 조마간 지구상에서 퇴출되는 업종들이 2억개가 된다는 예측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새롭게 급변화된 사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목회자와 선교사직은 쉽게 소멸될 업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책무가 현재에도, 앞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의 소통과 돌봄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모습이 되어야함을 보면서 따뜻한 마음과 정서적인 어루만짐을 가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귀한 도전들 3: 유럽에서의 선교의 집중력

유럽 선교와 각 위원회의 사역방향, 상호성, 유럽 선교의 추진력 등을 위한 좌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신학연구원을 통해서도 유럽내에서 집중해야할 사역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유럽 문화와 기독교의 연구와 더불어 선교사, 외국인 목회자들의 재교육의 필요성과 유럽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할 겹을 매꾸고 틈새를 감당해야할 것을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신학적인 소양을 갖도록 동행하고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역이 유럽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함께 연합하여 감당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은 본선교사가 항상 사도적인 비전으로 사고 있는 분야이어서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본 선교사가 좌담회에서 긍정적인 사역의 방향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역지의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역에 공유, 참석자, 협력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선교지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을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니기에 부모와 모 든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자녀들이 부모의 문화와 언어,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성장하고 이곳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자녀에게 신앙과 사역의 전승과 바톤터치를 이루는 문화적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선교는 지리적 이동, 문화적 이동, 사회계층으로 이동, 그리고 세대를 통한 이동이라고 볼 때, 자녀들을 향한 영적계승, 사역의 바톤터치가 선교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유럽이기도 합니다.

차세대 위원회를 통해, 선교신학연구원을 통해서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직업인, 전문인들

인 자녀들을 선교사로, 선교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준비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한 신학적, 선교적 양육을 이루어가야 하고 사역을 공유, 이양하며 책임있는 사역자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다짐

이 사역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자원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임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총회에서 선교사 30년 근속사역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25년을 살아가면서 독일교회와 협력하고, 국제 유학생들과 독일인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회 사역을 이루어왔습니다. 3년의 임기로 한국에서 바울선교회의 국제본부장 사역을 감당했다가 다시 독일로 재 진입하여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역도 필요하지만,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역이 필요함을 봅니다. 유럽선교회의 선교신학연구원을 통한 목회자 재교육과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에 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도제목

1. 유럽선교회의 모든 위원회의 사역의 활성화가 이루어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2. 유럽선교회의 선교신학연구원의 활동을 통해서 유럽내에서 연구, 교육, 훈련 등의 모든 활동이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3. 다음세대를 통해서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고 유럽의 재부흥을 위한 역군들이 일어나도록
4. 선교신학연구원에 이성춘선교사가 실제적인 참여하고 귀한 협력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5. 유럽리더십 포럼 (5월 16일 -22일, 폴란드) 참석을 통해서 유럽의 현지교회지도자들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사역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